

단편소설

먹을 잇다

송은유

그림=이준석
 ▲광주미술상 수상
 ▲광주미술인 공동체 회장, 사무국장 역임
 ▲제1회 통일미술제 집행위원장
 ▲광주시립미술관 증경작가 초대전(2016) 등 개인전 다수

장 마가 끝났다.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산사태가 일어난 마을에 집과 축사가 흩터짐에 묻혔다고 했다. 해당지역의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구조활동에 나섰다며 피해가 더 커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우는 고개를 돌리고 싱크대 쪽으로 발을 옮겼다. 라디오 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다. 발을 옮길 때마다 마룻바닥이 조이듯 끈적였다. 반쯤 열린 건넌방 문틈으로 아버지의 흰 등이 언뜻언뜻 보였다.

주방의 싱크대 앞에 서서 작은 창을 밀었다. 조그만 창 너머로 내다보이는 하늘이 눈이 시릴만큼 파랗다. 금방이라도 푸른 물이 똑똑 떨어질 것만 같았다. 선우가 전날 먹고 남은 찌개 냄비에 불을 댔다. 아버지가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선우는 휴대폰을 찾았다. 날이 갠으니 그동

장마가 멈추기 전까지 아버지는 매일 먹을 갈았다.

먹을 갈다가 어두워지면 그대로 고꾸라져 잠들곤 했다.

웅크린 아버지의 몸은 작았다.

안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서 팀장이 전화를 받았다. 상급자인 그에게 휴가 사유를 말했다. 허물어진 담장과 팬 마당을 손봐야한다며 작은 목소리로 우물쭈물 둘러댔다. 서 팀장이 ‘알겠다’고 느린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세계 움켜잡고 ‘고맙습니다’하고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 사이 찌개 냄비는 길이 차올랐다. 투명한 뚜껑이 차츰 명렬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아버지가 일터로 떠났다. 선우는 주방을 대강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은 군데군데 빗물에 젖어 있었다. 선우는 젖은 곳을 피해 창고 쪽으로 걸었다. 철재로 만들어진 창고 문이 열릴 듯 삐딱하게 닫혀있었다. 선우가 녹슨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게 열렸다. 컴컴했다. 눈을 여러 번 깜박거리고 나서야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다. 선우는 대못에 걸려있는 먼지집을 걷어서 꺼냈다. 먼지가 날려 한바탕 재채기가 났다. 쟁겨놓았던 짐 위로 짐이 튀었다. 선우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고 그것들을 하나씩 끌어내 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트렁크를 닫고 보니 타이어가 조금 주저앉았다. 주저 없이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페달을 깊숙이 밟아 눌렀다. 발끝에 짐이 다 실린 듯 묵직한 느낌이 났다. 차는 힘에 겨운 듯 했지만 가시지 않았다. 차안에 열기가 쫓겨 가지 않았다. 에어컨을 최상으로 켜지만 뒷좌석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시내를 벗어나니 땀을 두르고 있는 도로가 길게 이어졌다. 땀에는 뿔뿔이 넘실댔다. 비가 조금만 더 내렸다면 만수무개가 될 상황이었다. 똑같은 물살에 휩쓸린 흔적이 뚜렷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난 관목과 잡초가 패비닐이나 과자봉지와 섞여 한쪽 방향으로 썩어있었다. 자주 오갔던 길은 장마에 몸살을 앓고 난 것처럼 초췌했다.

세 시간쯤 달렸을 때 눈에 익은 풍경이 펼쳐졌다. 왼쪽 도로 끝으로 나지막한 삼바골의 능선이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선우는 산을 향해 난 긴 도로로 접어들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차체가 흔들렸다. 선우는 발끝에 더 힘을 주고 핸들을 짊어잡았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선우 쪽을 바라봤다. 선우는 손바닥에 난 땀을 바지에 쓱 닦았다. 얼마 가지 않아 차를 멈춰야했다. 물웅덩이 위로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었다. 선우는 차에서 내렸다. 나뭇가지를 들다 말고 흙, 비명을 질렀다. 빗물을 먹고 검게 변한 나뭇가지 아래 뱀 두 마리가 엉겨서 꿈틀했다. 선우의 손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졌다.

때마침 눈두렁길을 따라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폭 늘어난 모자 때문에 그늘린 뒷안등만 보였다. 노인이 다가와 삼으로 땅을 짚었다. 쉼, 소리와 동시에 두 마리 뱀이 순식간에 수로로 빠져나갔다. ‘아이고 징글징글해 이놈의 독사, 라고 노인이 울조리며 몸을 떨었다. 선우가 뒷머리를 쓸어 올리며 네, 하고 답했다. 노인이 쓰러

진 나무를 끌어당겨 길 가장자리로 끌어냈다. 모자를 고쳐 쓰며 어서 가보라는 듯 손을 내저었다. 선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차에 올랐다. 차는 또다시 기우뚱거리며 나아갔다.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손에 진땀이 났다. 노인의 모습이 룸미러에서 멀어져 한 점이 되어갔다.

작년 이맘때였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 벨 소리가 아련하게 울렸다. 선우는 서랍더미 속에서 휴대폰을 찾아 통화 버튼을 급히 눌렀다.

“나 찾지 마라.”

엄마가 뜬금없는 말을 했다. 당분간 아는 절에 들어가 좀 쉬고 싶다, 고 말했다. 선우가 왜, 라고 묻자 엄마는 잠았던 기침을 쿨럭였다. 무조건 엄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부아가 치밀었다. 하지만 왜 그러냐는 말 밖에 다른 말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왜요?”

엄마는 말을 잠근잠근 씩씩이 뱉어냈다.

“잘 살아라. 살아보면 알거다.”

“그니까, 왜 그러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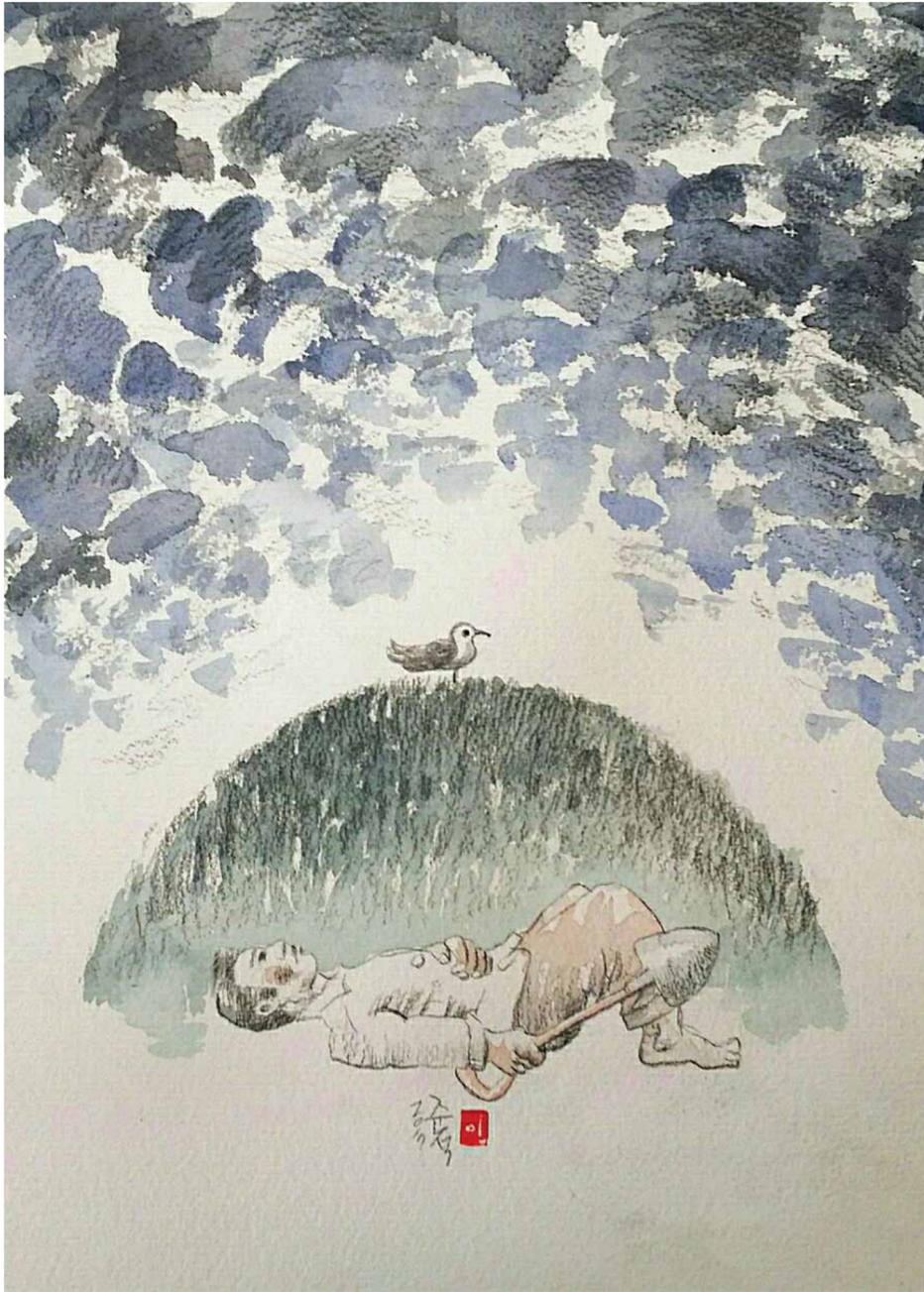
“살아보면 안다니까 왜 그러냐.”

전화가 짹짹 끊겼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울었다. 한 번 시작된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애끓는 목소리로 ‘어머님, 아버지’를 불렀다. 초저녁잠에서 깬 엄마는 길게 하품을 하곤 했다. 아이고, 지겨워.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주먹으로 방바닥을 쳤다. 울음소리와 방바닥을 때리는 동작이 박자가 맞았다. 선우는 이로 허를 놀려 웃음을 참았다. 엄마가 아버지의 더러운 작업복을 거칠게 벗겼다. 아버지의 안경이 옷에 쓸려 벗겨졌다. 아버지가 울음을 그치고 자신의 몸을 마구 더듬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손대지 마. 아무것도 만지지 마, 라고 뻣 소리쳤다. 엄마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손에 든 옷을 마룻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옷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경이 튕겨 나왔다. 아버지는 안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비틀대며 걸어갔다. 안경을 집어쓰더니 옷을 움켜쥐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옷에서 먼지가 피어올랐다. 엄마는 지겨워서 못살겠네, 하며 다가가 내놔요 좀, 하며 옷을 끌어당겼다. 아버지가 옷을 더욱 세게 움켜쥐는 바람에 엄마와 아버지가 줄다리를 하는 것 같았다. 옷은 두 사람의 손동작에 따라 나뭇잎처럼 울었다. 엄마는 성을 내며 옷을 맡아 쥐고 휘, 낚아챘다. 엄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옷을 놓았다. 손목을 감싸며 고통스런 얼굴로 선우를 쳐다봤다. 선우는 고개를 돌리고 마당으로 나가버렸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울었다. 선우는 마당에 앉아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아버지의 울음은 자정이 되면서 잦아들었다. 숯불이 재로 변해가듯 서서히 사그라졌다.

그믐달이 서편에서 가녀린 빛을 냈다. 문을 열면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발각 쏟아져 쏟아져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의 울음은 밤에 울었다. 아버지는 자정이 되면서 잦아들었다. 숯불이 재로 변해가듯 서서히 사그라졌다. 그믐달이 서편에서 가녀린 빛을 냈다. 문을 열면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발각 쏟아져 쏟아져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의 울음은 밤에 울었다. 아버지는 자정이 되면서 잦아들었다. 숯불이 재로 변해가듯 서서히 사그라졌다.

그믐달이 서편에서 가녀린 빛을 냈다. 문을 열면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발각 쏟아져 쏟아져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의 울음은 밤에 울었다. 아버지는 자정이 되면서 잦아들었다. 숯불이 재로 변해가듯 서서히 사그라졌다.



“아버지, 글씨는 안 쓰시고 왜 그렇게 먹만 가세요?”

선우가 마른침을 삼키며 노끈을 잡았다.

“엄마가 산으로 왜 가셨겠어요?”

번 뺨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 바로바로 없애야한다. 땅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파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묘에 뚫린 구멍은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아무렇게 막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묘에 난 잡풀 한 포기에도 진저리를 쳤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에 묘소는 정갈했다. 아버지가 어느 가을 날 묘소 앞 좌우 끝으로 예기던나무를 심었다. 그 후로 더 일찍 집을 나섰고 더 늦게 귀가 했다. 가을이 들 때엔 수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했다. 나무는 잘 자랐다. 하지만, 수심이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은 변함없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손과 안경은 굵은 자국만 늘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잊은 것 같았다. 엄마에게서도 연락 같은 건 없었다. 선우가 몇 번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받았다.

장마가 멈추기 전까지 아버지는 매일 먹을 갈았다. 먹을 갈다가 어두워지면 그대로 고꾸라져 잠들곤 했다. 웅크린 아버지의 몸은 작았다. 입을 벌린 채 사나운 꿈을 꾸는 것인지 이따금씩 몸을 움찔거렸다. 손은 나뭇가지처럼 뻣뻣해 보였고 배인 자국과 먹물로 지저분했다. 선우가 아버지의 팔과 어깨에 손을 대고 살피며 밀었다. 순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선우는 너무 놀라 아버지, 꿈 꿨어요? 저예요, 저, 했다. 아버지는 선우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눈을 뜨고 허공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에서 기이한 빛이 났다.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쉬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비가 그치면 다시 빈 집이 될 것이다. 하지만 비가 내릴수록 지구의 구심력에 의해 집은 땅바닥에 더욱 밀착되는 것 같았다.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먹을 갈았고 먹물은 걸쭉하게 변해갔다. 글씨는 쓰지 않았다. 먹이 작아지면 필묵함에 넣었다. 글씨라곤 지방을 쓸 때라야 겨우 쓰는 정도였다. 이번 제사는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다. 선우는 아침부터 절적거리리는 재래시장에 가야했고 소형 마트도 들렀다. 아버지와 함께 밤을 깨고 나물을 만들고 전을 부쳤다. 동태포에 물기를 뺀 다음 밀가루를 입히고 계란물에 적셔 팬에 올렸다. 그녀는 동안 손가락은 밀가루 반죽으로 범벅이 되었다. 선우의 얼굴은 점점 흉당무처럼 변해갔다.

빨리 그 일을 해치우고 싶었다. 뜨거운 팬에서 기름이 타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계란물에 적신 동태를 달궈진 팬에 올릴 때마다 손등으로 기름이 튀었다. 정신이 번쩍 들만큼 따가운 느낌이 짜증과 불쾌감을 불러 일으켰다. 눈이 뻘과 목은 따끔거렸다. 과열된 팬에서 동태전 몇 개가 결국 타버렸다. 선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자꾸 닦아내야 했다. 부엌에 달린 다용도실에서 교차상을 꺼내오던 아버지가 몇 번의 마른기침을 했다.

“아버지, 할머니가 감을 좋아했다니까. 감하고 밥, 국만 올리시다. 엄마도 없는데, 몸살이 날 것 같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 무슨 병어리 발등 앓는 소리야.”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가요.”
 “뭐라는 거냐? 나 죽으면 잣대도 못 언 어떡했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고 죽은 다음은 없다

고요.”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루 끝에 한참을 앉았다 일어나 상을 끌어냈다. 지방을 써서 올리고 상에 놓인 음식들의 자리를 바꾸어 놓았다. 향을 피울 때 부엌 창이 덜컥거렸다. 촛불이 너울거리며 그 울음을 피워냈다. 선우는 아버지를 따라 절을 했다. 합문 시에 아버지가 방안의 형광등을 켰다. 그러곤 필묵함 옆에 앉아 눈을 감았다. 안경이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괴로운 표정으로 굳어진 주름살이 더 깊어졌다. 아버지의 얼굴에 불안하고 괴로운 빛이 스치곤 했다. 모래가 치듯 비가 부엌 창을 때렸다. 아버지가 지방을 때어 촛불에 태웠다. 제사상을 접어올린 다음, 필묵함을 열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작아진 먹들을 꺼내어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마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안경을 닦아 쓰고 마루 끝에 앉았다. 각진 턱 선이나 안경에서 고집이 느껴졌다. 검정 테두리가 아버지의 고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했다. 선우는 가끔 아버지의 안경을 벗겨버리고 싶었다. 아버지가 달라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거부죄를 하고서 필묵함을 열었다. 그러곤 정오가 될 때까지 먹을 갈았다. 점심밥은 남겼고 닭집을 잤다. 잠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또 먹을 갈았다. 묵향이 주방까지 가득 번졌다. 아버지가 선우를 불렀다. 선우는 마루로 나왔다. 아버지가 결눈으로 선우를 보며 책 위에서 문진을 치웠다.

“이걸 좀 읽어봐라.”

아버지가 한지로 엮은 책을 선우 앞으로 밀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곧 구조조정을 할 모양이에요. 감사다 뭐다 해서 특하면 야근하고 그걸 볼 새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엄마가 왜 나왔겠어요?”

“뭐라는 것이냐?”

“다른 묘한 할 게 아니라 조부모님 묘소부터 해야지요.”

선우는 에이 씨, 속엿 말을 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네 엄마는 내가 싫어서 나간 거다. 내가 산소에 간 것처럼 네 엄마도 뭔가를 찾아 나간거야. 허튼소리 관둬.”

아버지가 가래를 끌어올려 삼켰다. 선우는 상체를 바로 세웠다. 눈꺼풀이 실룩거렸고 고개가 흔들렸다. 아버지가 인사를 쓰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선우는 진저리가 났다. 선우는 마당으로 내려갔다. 마당 구석진 곳에 죽은 화분을 괜히 비우고 싶었다. 화분을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렸다. 박살났다. 조국토와 마사토가 마당에 흩어지고 사기 조각이 튀었다. 아버지는 기침이 도지는지 클콜거리며 길고도 길긴 기침을 토했다. 선우의 손에서 벗어난 화분은 더 세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비가 가늘게 내리다가 어느 순간 세차게 내렸고 잠시 멈추기도 했다.

한 나절 비가 갠 날이었다. 서편 하늘로 커다란 빨대가 비행운처럼 선명한 띠를 그리며 땅에 꽂혀 있었다. 선우는 마루에 걸터앉아 햇볕에 발을 내밀었다. 좀 따가웠지만 기분이 괜찮았다. 선우는 발끝에서 나뭇 가지가 빠져 나간다고 생각했다. 햇빛이 의식까지 파고 들어 삶에서 생겨난 습기, 슬픔, 절망, 살기, 고독, 분노, 권태, 배신-를 몰아낸다는 자기 역설에 빠져들었다. 그것이 어쩌면 마음의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삶에 틈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우는 갈증이 났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극한 상태까지 가는 걸 즐겼다. 갈증은 건넌 만했다. 때로 죽음 직전의 공포 같은 게 닦혔지만 한기증이 나면서 짜릿했다. 시야가 흐릿해지면 일어났다. 앞이 캄캄했고 몸이 쭈뼛 뻗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데 식탁 위에 주민세 납부고지서와 아버지의 소지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잠을 잘 때도 벗지 않았

